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외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제 1독서] 이사 11,1-10
[화답송] 시편 72(71),1-2,7-8,12-13,17(◎ 7ㄴㄷ 참조)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시나이다. ◎
 ○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 2독서] 로마 15,4-9
[복음 환호송] 루카 3,4,6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마태 3,1-12

성가	8시 미사	입당 91	봉헌 211 212	성체 156 157	파견 46
	11시 미사	입당 91	봉헌 211 212	성체 157 156	파견 46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대림 제 2주일(12월 8일)		대림 제 3주일(12월 15일)		대림 제 4주일(12월 22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오로(명국)	황테레사(혜정)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이마리크레센시아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최분도(환준)	정요한(석준)	김안드레아(찬곤)	이레이몬드(창용)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심헬레나(승화)	최분다(수영)	손리디아(정옥)	김글라라(순희)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대림 제2주일을 맞이한 오늘 복음은 회개하라는 강력한 권고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인 세례자 요한의 엄중한 외침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3,2)는 말씀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마태3,6)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묻혀 살면서 온갖 죄를 지었으며,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어느덧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져 전혀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점을 인정하고 뉘우쳐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3,8)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뉘우쳤다 하더라도 회개의 결과가 구체적인 행실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직 반쪽자리 회개일 뿐입니다. 참된 회개는 말이나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로마15,7)라고 권고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회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 온 웅졸한 삶을 뉘우치고 화해를 통하여 서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는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해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끝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합니다. 이사야서는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의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이사11,4)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바로 진심으로 회개한 이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대한 사명입니다. 만일 힘없고 가련한 이들이 차별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결코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들의 중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사야가 노래하는 것처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고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찌 가고, ... 짐승이가 독사 굴 위에서 장난하며, 짐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 굴에 손을 디밀어도” (이사11,6-8) 결코 서로를 해치지 않는 삶, 서로 공생 공존하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생명의 말씀

소박하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자 제32회 인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에 맞갖은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만천하에 천명하는 날입니다.

아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라도 그 중심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진정한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논리로 인하여 공동선이 파괴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권리가 훼손되는 현상을 끊임 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국내 인권문제에는 다소 관심과 지지를 보내지만,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먼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어느 학생이 했던 이야기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국내의 환경파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그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지구촌에서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를 사용해 보지도 못한 어느 나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 물에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국토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 사회는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물질과 편리함 안에서 헛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지구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물질만능주의와 생명경시풍조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였으며, 우리들을 ‘죽음의 문화’ 현상들의 위험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 해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지구촌생명체들이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필수기본요소 여섯 가지 중에서 ‘인’ (P)을 대신하여 독극물인 ‘규소’ (Si)를 사용해 생명을 유지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이 이렇게 심오한데, 하물며 우리가 생명을 조정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깊게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마태 3,2.11)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초라한 것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비로소 소박하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굳이 인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고자 하시는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느껴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곧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전영준 바오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당신이 그리우면 촛불을 켵니다.
작아지고 작아지면
어느새 찾아오실 당신

글_ 목상글, 그림_ 구민정 엘리사벳

말씀의 향기

하느님의 메시지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술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맥주 서너 모금만 마셔도 온몸이 흥당무가 되고 심장이 뛰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 술자리를 피하는 것은 거의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마시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주량이 약한 사람이 급격히 주량을 늘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지금은 술을 너무 잘 먹어 걱정인데, 심지어는 좋아서 찾아 마시는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고 성인병도 생기니 술을 줄이라는 이야기를 수 없이 듣는데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술 마시는 기회를 만들곤 했습니다.

몇 해 전 월드컵 경기가 한창 열릴 때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오신 아버님 같은 분을 만나 뵙기 위해 부산에 갔는데, 마침 그 날이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손님을 모시고 지하에 있는 바로 내려가 그곳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사업상 손님이긴 하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기분 좋게 취해서 우리 팀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응원을 하던 중에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이! 거 우리 옆 테이블 글마 봤나?” “누구?” “자세히 보이게네, 그 두산 회장 박용만인가 그 친구 인갑다.” “어! 그래? 확실해?” “맞다. 틀림없다. 우와 근데 글마 침부터 끝까지 폭탄주로만 마시bbe네. 한 술하는갑다. 술 억수로 잘 마시bbe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뭐 글카다 고마 하느님이 열른 데려가시겠지.” 더 듣고 있기가 민망해서 돌아서며 “제가 박용만입니다. 고마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술 좀 줄여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로 돌아와 생각하니, 정말 이러다 큰일이 나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하느님이 열른 데려 가지겠지.” 라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제로 마시는 술을 줄였고 지금은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정도입니다.

회사에서도 음주 민주주의를 회식자리에서의 기본 철학으

로 정립하여 싶은 술 억지로 권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일도 참으로 하느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대부분 건강으로 직접 혼이 나고 정신을 차리는데, 저에게는 구수한 남도 사투리를 하는 두 분의 입을 빌려 하느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일이 늘 이어지니 참으로 저를 예뻐 하시나보다 생각하며, 반가운 마음으로 성당 문을 들어섭니다.

박용만 실바노
(주)두산 회장

머 무 림

저는 특별히
낙태를 한 적이 있는 여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일은
심각한 잘못이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자비의 하느님께서 화해의 성사로
용서와 평화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9항

가톨릭전례

혼인성사

1) 하느님의 계획과 혼인

하느님께서 혼인 생활의 제정자이십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가지 문화와 사회 구조와 사고방식으로 수많은 변화를 겪었다 하더라도, 혼인은 단순히 인간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 아래에서 놓여 있는 인간들은 남녀간의 사랑과 혼인 역시 왜곡된 형태로 살아갈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도 그러합니다.

죄로 어지러워진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부부 결합의 본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마태 #19:6)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교회는 혼인과 가정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일을 그 어떤 소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2) 가톨릭 교회의 혼인에 관한 기본 원칙들

*단일성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일부일처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수호하는 것과 적절치 못한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그런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는 사목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가해소성

일단 맺어진 혼인은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진 서약이므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이전에는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법적으로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여전히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매우 다양한 이유로 혼인에 따른 동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있다. 이 경우 교회는 부부의 실질적 별거와 동거의 종식을 인정한다. 이 부부는 하느님 앞에서 계속 남편이고 아내이다. 그들은 새로 혼인할 자유가 없다(가톨릭 교회교리서 #1649항).-

*신자들 안에서의 혼인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원칙적으로 신자들끼리만 혼인할 수 있습니다(성사혼). 신자 아닌 사람과 혼인할 경우 가톨릭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신자들의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예외적으로 신

자 아닌 사람과 혼인할 수 있습니다(관면혼). 그 경우에도 당사자들은 사제 앞에서 특별한 서약(비신자가 신자 배우자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혼인 예식을 해야 합니다.

*교회법에 따른 혼인

신자가 신자와 결혼하든지, 비신자와 결혼하든지, 반드시 교회법에 따라서 교회 예식으로 혼인을 해야 합니다.

3) 혼인 장애와 그것을 해소시키는 방법

혼인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혼인 장애(예전에는 혼인 조당이라고 함)라고 하고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혼인 장애 상태에 있는 신자는 영성체와 고해성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사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교회법에 따른 혼인예식을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만 결혼했을 경우, 그 배우자가 신자이건 아니건 간에 혼인 장애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후에 재혼을 했을 경우에 혼인 장애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는 아직 혼인 장애 상태가 아닙니다.

교회법에 따른 혼인예식을 하지 않아서 생긴 혼인 장애는 뒤늦게라도 본당의 사제들과 상의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되면 그 순간 해소됩니다.

이혼 및 재혼과 관련된 혼인 장애는 풀기 힘듭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결혼 생활이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것이었다면 본당 주임신부님과 상의하여 교회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혼인이 원래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밝히는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사회에서 하는 재판처럼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 인정받게 되면 그 신자의 이전 혼인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그 사람은 다른 배우자와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4) 가정 교회

혼인의 출발점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지만, 그 목표점은 신앙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더불어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만 살아간다면,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의정부교구 선교사목국장

- 성 쟁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지난주 우리의 정성

날짜	지향	봉헌자
12월 8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윤바오로(광의)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황다윗(대현)	황울리안나
	연 민경문	민제노베파
	연 서데레사(금이)	정글라라
	연 정요셉/서데레사	정베드로
	생 이라파엘(원중)	이요한/글라라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강루시아(수영)	찬미성가대
	생 김임마콜라따(순덕)	찬미성가대
	생 한요한	전례성가대
	생 임세트리다	전례성가대
	생 전안드레아	서데레사
	생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가정
	생 정안드레아(일양)	신빈첸시오
12월 10일 화	연 최베드로(휘중)	가족
	생 기도해주신모든분들	정안드레아가정
	생 정안드레아(일양)	김데레사
12월 11일 수	생 정안드레아(일양)	박헬레나
12월 13일 금	생 임루시아 축일	김카타리나
12월 14일 토	생 김요한 축일	김카타리나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79	213	-	292
헌 금	\$539	\$1,264	-	\$1,803

< 교무금 > \$3,788

김원덕(11-12) 조정학(10-2/2014) 전숙희(12)
 남금지(12) 이정연(12) 전덕천(11-12) 이병열(12)
 조덕행(11-12) 이명란(12) 정진희(12) 조우송(12)
 천종욱(12) 박호영(12) 육승주(12) 전문자(12)
 송선주(11-12) 이선희(11-12) 이성재(9-12)
 최명숙(12) 김옥녀(12) 이규주(7-12) 최몽렬(11)
 김영자(11)

< 성소후원금 > \$400

김원덕(3-12) 전숙희(12) 이명란(12) 정진희(12)
 이선희(10-11) 박호영(12) 육승주(7-12)
 이규주(1-12)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최명숙 \$250 윤덕림 \$100

< 대림초/꽃 >

김영선 \$100 김영자 \$50 이육경 \$100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55,550
 * 총 납입 \$54,95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515.28(186 세대 약정)
 * 봉헌액 \$292,345.28

~~~~ 오늘의 간식은 이원중 라파엘 댁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2차 헌금 안내

12월 8일(오늘) Religious Retirement

◆ 성탄 및 송년 전례 안내

12월 24일(화) 저녁 8시 성탄 성야 미사  
12월 25일(수) 오전 11시 성탄 미사  
12월 31일(화) 저녁 8시 송년 감사 미사  
1월 1일(수)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의무축일\*  
\* 25일, 1일 수요일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대림절 성경 쓰기 : 시편 71장 - 150장  
(12월 24일 성탄전야 미사 때 봉헌해 주십시오.)

◆ 성탄판공성사  
매 미사 전에 성사표를 작성하시어 판공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합동판공성사 : 12월 12일(목) 저녁미사 후  
- 영어로 성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운석 요한  
신부님께 성사를 보시면 됩니다.

◆ 대림피정 안내  
일시 : 12월 10일(화) 오후 7:30 - 10:00  
12월 11일(수) 오후 7:30 - 10:00  
\*\*\*\*\* 수요일 아침 미사 없습니다.\*\*\*\*\*  
주제 :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강의 : 신은근 바오로 신부님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참가비 : 무료(간식 제공)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성탄봉성체  
일시 : 12월 20일(금) 오후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대림초/성탄 제대꽃 봉헌을 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 성탄 구역별 장기자랑 및 성가경연대회  
일시 : 12월 25일 성탄 미사 후  
\* 경품잔치에 사용될 선물(\$20 상당)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 당일 판매하는 라플 판매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됩니다.

◆ 대림절 맞이 성물방 20% 세일  
성물방 이익금은 빈첸시오 후원에 사용됩니다.

11월 구역모임 테살로니카 1-2장

4 구역 | 12월14일(토) 6시반 | 이주황 요한 맥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2호실
- \* 요아킴회/안나회 : 12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친교실
- \* 본당 ME 모임 : 12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독서 Club : 12월 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3호실
- \* 울뜨레야 모임 : 12월 15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 뜨개질사랑회 : 12월 15일 교중미사 후 103호실

◆ 올해의 교우상 후보자 추천

수상 내역 : 추천서 참조  
시상 : 12월 25일 성탄대축일 미사 중  
접수 : 12월 15일까지 사무실에 제출  
문의 : 영성부장 707-696-7743

◆ 북가주 ME 연말 모임

일시 : 12월 28일(토) 저녁 6시  
장소 : 산호세 성당  
참가비 : 부부당 \$60

◆ 북가주 제 25차 ME 첫주말 공지

일정 : 2014년 1월 24일 - 1월 26일까지(2박 3일)  
장소 : Hilton Garden Inn, Hayward CA  
문의 : 한요셉 415-810-3175/한헬레나 925-285-2038

◆ 각 단체장들께서는 2013년 결산 및 행사보고서와  
2014년 예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22일까지 총무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오클랜드 교구청 산하 가톨릭 장례 서비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지 구입 20% 할인 행사가 12월까지  
입니다. 한인 성당에서 100기를 약정했는데 현재  
20기만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카니킴 510-234-2012

안국학교 소식

- 12월 14일 ~ 12월 28일 : 겨울 방학
- 2014년 1월 4일 : 개학